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현대중공업	9,302.7	16.8	134,500	0.0	14.0	31.9	40.2	93.7	44.9	0.7
현대중공업지주	6,596.1	20.7	405,000	1.4	7.3	14.6	6.3	5.5	4.6	0.7
현대일렉트릭	705.2	4.7	69,100	-0.6	16.7	-1.3	-39.4	6.6	5.7	0.6
현대건설기계	1,209.8	8.3	122,500	-1.2	3.8	-13.1	-27.5	7.8	5.8	0.9
삼성중공업	5,090.4	18.0	8,080	1.0	14.1	132	24.9	51.0	25.3	0.5
대우조선해양	3,714.7	9.3	34,650	-0.9	21.8	28.3	149.3	8.6	18.4	1.0
현대미포조선	2,070.0	10.1	103,500	0.5	5.8	20.6	31.5	22.3	16.1	0.8
한진중공업	273.6	6.9	2,580	-0.4	-1.3	-13.4	-22.1	51.9	12.9	0.4
현대엘리베이터	3,028.1	23.4	111,500	-3.5	22.1	24.4	105.0	19.7	19.2	2.7
두산밥캣	4,050.1	26.2	40,400	0.7	13.5	26.3	14.3	14.8	13.9	1.1
현대로템	2,592.5	2.4	30,500	-3.5	11.9	8.7	62.7	39.3	26.8	1.7
하이록코리아	323.3	48.9	23,750	-0.6	-3.3	-7.2	5.6	10.8	9.8	0.9
성광밴드	368.9	16.1	12,900	0.8	10.7	11.2	29.3	1,140.3	46.3	0.8
태평	361.7	13.0	13,650	-2.2	6.2	15.2	13.3	81.5	39.8	0.9
두산중공업	1,745.5	14.9	14,900	-0.3	5.3	-4.8	-2.9	24.6	9.0	0.5
두산인프라코어	2,039.9	20.5	9,800	1.0	2.9	1.7	12.8	6.4	6.0	1.1
HSD에프진	150.6	4.3	4,570	0.2	20.9	9.9	77.9	-17.6	-23.2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421.4	12.8	35,100	-29.8	-15.9	-14.8	-26.0	31.4	23.0	3.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21.8	11.6	25,400	-11.5	1.6	8.3	-28.6	32.8	18.0	0.6
LIG넥스원	762.3	8.3	34,650	-3.1	4.1	-13.5	-42.1	37.1	17.7	1.2
태웅	280.1	4.8	14,000	-1.4	-11.7	-13.6	-27.6	N/A	N/A	N/A
동성화이텍	212.6	5.3	7,880	0.1	3.5	17.6	56.0	-40.4	21.1	2.7
한국기본	308.6	14.1	7,020	4.6	10.6	11.6	31.0	81.5	21.6	1.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SIW: 신조선가 지수 130p, 중고선가 지수 99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30p, 중고선가 지수는 99p로 전주와 동일함.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에 컨테이너선 15,300TEU급 8척, 대우조선해양에 23,000TEU급 7척, 삼성중공업에 23,000TEU급 5척을 발주함. 해당 컨테이너선은 2020~21년 인도 예정이며, 스크러버가 장착됨. (Clarksons)

대우조선해양, 로즈뱅크 해양설비 발주 연기될 가능성에 가슴 졸여

노르웨이 Equinor가 Chevron이 보유한 Rosebank 프로젝트 지분 매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Rosebank FPSO 발주 연기 가능성에 제시됨. Rosebank FPSO 발주는 당초 9월 말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었으나, 아직 소식이 없는 데다 지분 구조가 바뀌면 일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짐.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중공업, '우여곡절' 끝에 이란 발주 컨선 4척 인도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이란 경제재제 복원으로 인도가 지연된 14,5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인도했고, 선박대금을 수령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이란 국영선사 IRISL이 발주함. IRISL은 직접적으로 선박을 인도받는 대신 중국 상하이리치 홀딩그룹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인도받는다고 알려짐. (EBN)

현대일렉트릭, 美생산법인 증설에 124억 투자

현대일렉트릭은 미국발 통상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앤디바마 반압기 생산법인에 1,100만달러(123.9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해당 자금은 생산능력 확충과 스마트공장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될 예정임. 현대일렉트릭은 앤디바마 공장에서 2021년까지 매출 2억달러를 목표함. (머니투데이)

현대상선, 초대형 선박 20척 모두 '스크러버' 단다

현대상선은 국내 조선 3사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함. 각 조선사 별로 현대중공업 1.5만TEU급 8척(9.12억달러, 1조원), 대우조선해양 2.3만TEU급 7척(10.2억달러, 1.1조원), 삼성중공업 2.3만TEU급 5척(7.3억달러, 0.8조원)을 수주함.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2분기, 현대중공업은 2021년 2분기에 인도를 목표함.

컨테이너선 20척은 모두 LNG-Ready 디자인을 적용하고, 스크러버를 장착할 예정임. LNG-Ready 디자인 적용에 따라 향후 LNG 추진선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만들 계획임. 현재 현대상선의 선박량은 41만TEU(세계 10위) 수준으로, 이번 발주를 통해 정부의 100만TEU 선사 육성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임. 현대상선의 발주잔량은 39.6만TEU로, 발주잔량 기준 세계 2위임. (EBN)

Seadrill reveals pre-restructuring profit

노르웨이 선박왕 John Fredriksen의 Seadrill은 상반기 첫 세전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함. 회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매출 7.12억달러에 조정 EBITDA 1.9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알려짐. Seadrill은 상반기 노후화된 시추장비 3기에서 4.14억달러 손상을 인식했음에도 세전이익을 기록함. (TradeWinds)

올레핀서 미래 찾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자회사 현대케미칼은 2021년까지 총 2.7조원을 들어 HPC 공장을 건설할 예정임. HPC 공장은 원유찌꺼기인 중질유분을 주원료로 폴리에틸렌 75만톤과 폴리프로필렌 40만톤을 생산할 수 있음. 기존 NCC보다 원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설비이며, 이를 통해 비정유부문 영업이익 확대를 목표함. (서울경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자료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10월 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0.1%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0월 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